“찾아가는 법회로 지역 대중과 만납니다”

지역 불교人 정읍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

2023년부터 마을 순회하며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 봉행
독지가 후원으로 효 잔치도
선명상 강좌 통해 포교활동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는 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공간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드럽게 스며드는 수행이어야지요.”

정읍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사진〉은 매월 음력 초하루면 법당 밖으로 나선다. 신도들이 찾아오는 법회가 아닌, 스님이 먼저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초하루 법회를 시작한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사찰이 산중 오지에 자리잡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연로한 신도들은 산중턱의 절을 찾아오기 힘들자 스님이 직접 신도들을 찾아 나섰다. 지난 2023년 6월 시작된 이 법회는 지금까지 정읍시 26개 마을을 순회하며 이어지고 있다. 신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이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회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에요. 절에 올 수 없는 어르신들, 종교를 떠나 힘든 삶의 무게를 지고 사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고자 시작했지요.”

이 같은 진심은 지역사회에서도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법회의 입소문을 들은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대규모 효 잔치까지 열게 됐다.

오는 12월 6일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효잔치에는 식사는 물론 유명 가수 공연과 치매 진단 상담, 미용 봉사, 전통차 시음 부스, 영정사진 촬영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불교 행사로 시작된 활동이 이제는 지역 복지와 문화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종진 스님은 선명상 강좌에도 힘을 쏟고 있다. 출가자 중심의 수행으로 여겨졌던 참선 수행을 불자와 일반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화하고 있다. 보림사에서 시작된 명상 강의는 이제 광주, 전주, 정읍 등 외부 지역에서도 수강생들이 찾아올 만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명상이란 결국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잖아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안다는 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종진 스님은 군 장병을 위한 포교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정읍 105여단 장병들은 매월 1회 보림사를 방문해, 스님과 함께 법문을 듣고, 명상 수행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젊은 장병들에게 불교의 본질을 전할 수 있는 건 매우 소중한 인연입니다. 군 생활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보림사를 찾는 이들은 절만 둘러보고 가지 않는다. 스님과 차 한 잔 나누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간다. 종진 스님은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마음을 놓을 곳이 없어졌어요. 저는 불교가 그런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찾아가는 법회, 명상 강좌, 산사음악회, 군 장병과의 인연까지, 모두 다르지만, 그 중심엔 ‘불교는 곁에 있어야 한다’는 스님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큰 불사도 좋지만, 저는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주민과 함께 숨 쉬는 절, 언제나 열려 있는 사찰이 되도록 보림사의 문을 낮게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불자 되다

선운사 선재동자 수계법회 봉행
11월 8일 대웅보전 특별계단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선재동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1월 8일 선운사 대웅보전 특별계단에서 봉행된 수계법회는 선운교육문화회관 어린이 법회 회원과 군산 동국사 청소년법회 회원 등 유아, 아동, 청소년부 어린이 청소년 28명이 삼귀의계와 어린이 오계를 수지하고 불자로 거듭났다.

혜수 스님의 인례와 성종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수계법회는 전계대화상에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 갈마아사리 운천 스님, 교수아사리 지태 스님이 참석해 아이들에게 삼귀의계와 어린이 오계를 수계했다

이날 법회에는 수계 어린이들과 가족, 신도회 임원들도 동참해 나이와 세대를 아우르는 계층별 수계의 의미를 더했다.



고창 선운사는 11월 8일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선재동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경우 스님이 마정수기를 하는 모습.

경우 스님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삼귀의계와 어린이 오계를 설한 뒤 장래에 부처가 될 것임을 증명하는 마정수기를 진행했다. 수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수계첩과 오조가사, 합장주, 호신경, 미륵반가사유상, 그리고 포근한 겨울용 패딩이 수계 선물로 전달됐다.

경우 스님은 “오늘 수계를 받은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수계공덕으로 모두 건강하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계를 통해 ‘동진’이라는 법명을 받은 정동섭 학생은 “불교를 접하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종교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며 “부처님 제자로 받아주신다는 점이 기쁘고 숭고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법회 후에는 선운사 대중 스님들과 수계 어린이, 가족, 신도들이 함께 만세루에 모여 다과 자리를 가졌다. 따뜻한 차와 간식이 마련된 공간에서 아이들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불심을 나눴고, 부모들은 자녀의 수계를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공유했다.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 모두가 사찰 공동체의 따뜻함을 체감했다.

이번 선재동자 수계법회는 항상 교구 포교를 우선해 온 경우 스님의 원력으로 마련됐다. 군장병, 불교대학 학인, 포교사, 신도회를 비롯한 신행단체 임원들뿐 아니라 영유아와 청소년까지 수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례화함으로써 조계종의 포교 지향점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신도 양성’에 모범을 보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불교계, 사찰음식으로 자비나눔

11월 8일 천안 각원사서
불자·시민 3000명 한마음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언 스님)는 11월 8일 각원사 영산전과 개산기념관 앞 무대에서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 및 ‘제1회 한국식문화(사찰음식) 전시회’를 개최했다.〈사진〉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사찰이 준비한 다양한 사찰음식과 차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원사는 해물파전과 전류, 극락정사와 태학사는 어묵과 떡볶이, 도광사는 유자차와 쌍화차 등 차류, 승천사는 된장과 메주 등 장류를 준비했다.

올해 처음 열린 한국식문화 전시회에서는 광현 스님(무애사)이 직접 만든 54가지의 사찰음식이 선보였다. 산나물, 두부 요리, 장아찌 등을 준비한 광현 스님은 “수행과 자비, 절제의 마음이 깃든 문화유산인 사찰음식으로 모두가 건강한 마음과 삶



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사암연합회 원로의장 지산 스님은 “여러분들의 정성과 공덕이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사암연합회장 도언 스님은 “오늘 일일찻집은 연합회 소속 사찰들이 자원봉사로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라며 “수익금은 모두 소년소녀 가장과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여 불교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 원로의장 지산 대원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정효숙 세종·충남 포교사단 부단장 등 3000여 명이 함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태고종, 50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11월 5일 순천 선암사서
58명 사미·사미니계 수지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1월 5일 순천 선암사(주지 승범 스님)에서 ‘제50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봉행하고 58명의 새로운 출가 수행자를 배출했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당초 60명이 입소했으나 2명이 자진 퇴소해 사미 41명, 사미니 17명 등 58명이 수계했다. 수계자들은 지난 10월 10일 입소 후 28일간 기초습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예불과 불교의식 습의, 종지·종풍과 종단사, 울력, 일보일배 등의 수행과정을 이수했다.

이날 산림법회에는 전계아사리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갈마아사리 시각 스님(중앙종회의장), 교수아사리 구산 스님(호법원장)을 비롯해 교육원장 재홍, 포교원장 능해, 고시위원장 휴완, 선거관리위원장 정운, 법규위원장 육화, 경남교구종무원장 황봉, 해외교구회주 종매 스님 등 칠증사가 참석했다.



전계아사리 상진 스님은 “득도는 세속의 삶을 떠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며, 앞으로는 인천(人天)의 스승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가 수행자는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욕심과 분별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며 “불법을 널리 전하고 중생 교화에 헌신하는 태고종의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비의식 후 진행된 체발식에서는 현담 사미가 대표로 머리카락을 올렸으며, 상진 스님은 범산 사미에게 수계증을 대표로 전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에 범수, 우수상에 범산, 모범상에 명해, 봉사상에 상적·혜은·법계, 인욕상에 금동 행자가 각각 선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운 스님, 일붕문도중앙회 총재 취임

11월 10일 문도의 날 취임법회



(사)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회장 정림 스님)가 11월 10일 안성 영평사 특설무대에서 ‘제54회 세계법왕일붕문도의 날 기념 및 제2대 총재 청운 대종사, 제2대 문장 천강 교령 취임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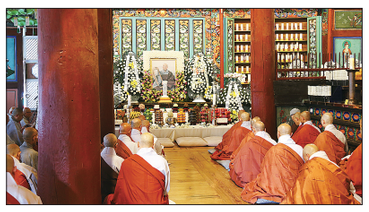
제2대 총재로 취임한 청운 스님은 취임사에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일붕 존자는 한국 불교 발전은 물론, 세계 불교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존자의 가르침과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문도 모두가 자비와 평화의 사상을 널리 전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제2대 문장으로 취임한 천강 교령은 “일붕 존자께서 세운 위대한 법의 공동체를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도회장 정림 스님(영평사 주지)은 대회사에서 “세월이 흘러도 존자의 공덕과 자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문도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세계 곳곳에 평화의 사상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해인사, 성철 대종사 추모다례

11월 9일 열반 32주기 맞아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성철 스님의 열반 32주기를 맞아 스님의 청정수행정신을 기리는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11월 9일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퇴옹당 성철 대종사 열반 32주기 추모다례재’에 앞서 대중들은 부도탑에 헌화로 추모의 뜻을 올렸다. 다례재에는 주지 혜일 스님과 범어사 수좌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 문도대표 원타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원타 스님은 인사말에서 “‘자기를 바라봅시다’라는 대종사님의 법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남을 위해 남모르게 기도합시다’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가야산의 청정도량에서 대종사께서 남기신 수행 가풍을 이어 불법홍포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능인종, 종수 대종사 9주기 다례재

11월 9일 진영포교당서



능인종(총무원장 수암 스님)이 11월 9일 화장사 진영포교당에서 ‘한파당 종수 대종사 추모 9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석에는 해광사 원공 스님, 맏상좌 우암 스님, 불영사 일산 스님, 미륵사 현암 스님, 화장사 정우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스님의 수행정신과 법맥을 되새겼다.

총무원장 수암 스님은 추모사에서 “한파당 종수 대종사께서는 수행자의 본분에 철저하고 무집착과 무아의 실천으로 일생을 사셨다”며 “그 뜻이 능인종의 포교와 수행의 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파 스님은 2005년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를 창립해 전통 불교의식음악 전승과 연구, 후학 양성에 헌신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안 각원사, 태국 왓싸켓 사원과 교류

11월 9일 프라랏 스님 방문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가 태국 방콕 왓싸켓(Wat Saket) 사원과 친선 교류하며 우호를 다졌다. 주지 대원 스님은 11월 9일 왓싸켓 사원 부주지 프라랏 킷차번 스님의 예방을 받고 양국 불교 교류와 발전 방향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사진〉

대원 스님은 환영 인사에서 “태국 왓싸켓의 스님들과 천안 붓다라마의 찌라삭 스님 일행을 맞이하게 되어 반갑다”며 “이 인연이 한국과 태국 불교의 교류를 더욱 깊게 하고 양국 불자들의 삶 속에 더욱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불교신도회, 불자 파크골프대회

11월 5일 500여 명 참석



창원특례시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이상연)는 11월 5일 창원 대산드림파크골프장에서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불자 친선 파크골프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창원불교연합회장 법안 스님과 이상연 창원특례시불교총연합신도회장, 조보현 수석부회장, 김정기 부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안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행사가 불자 여러분의 신심과 자비심을 더욱 고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